

지역 소식통

정읍시, 관광 유튜브 공모전 개최

정읍시(시장 이학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여행을 공유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정읍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문화·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2023 정읍시 관광 유튜브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8월 31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공모전은 지역, 연령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전의 주제는 정읍의 숨겨진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로운 소재이며, 출력규격은 3~5분 이내 해상도 1920x1080 FHD 이상의 동영상이어야 한다.

참여 방법은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영상 업로드 후 참가신청서(영상링크 URL 기재),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 서약서를 접수 기간(4.1.~31.)안에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맞춤형 기술교육 전문농업인 양성 앞장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단)는 새 기술 정보네트워크 구축과 협동 경영 등을 통해 소부가지 창출 능력을 높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해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2023년도도 품목별 전문 농업기술교육을 오는 28일부터 6월2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목별 재배 시기에 맞춰 농지교류 재배와 공재배 및 신소득작물 시설재배 육성효과 대목 오이대목 집목재배실습 등 심도있는 재배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과정은 △신소득 작물의 종류와 재배방법 △아스파라거스와 병풀오이 호박을 통한 절목 재배 특성과 기술, 쌀소비 촉진을 위한 부인술 발굴 등 다양한 이론교육과 실습·현장교육으로 운영된다.

부안군은 현재 지난해 아스파라거스 재배 교육을 통해 5개 농가가 생산 및 로컬푸드에 납품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교육을 통해 점차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사람, 다시 하늘이 되다'

고창서 '동학농민혁명 제129주년 고창무장기포기념제' 개최

고창군이 25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 제129주년 고창무장기포기념제'를 개최했다.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진윤식 이사장)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공음면 무장기포지 일원에서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김민기 전라북도의회 부의장, 신순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사장, 전성준 전북경찰청장을 비롯한 여러 기관사화단체장과 전국 유족회 및 기념사업회, 군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해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유럽에서 활동중인 고창출신 세계적인 성악가(노동용 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제16회 녹두대상 시상, 동학농민군 진격로 걸기체험, 무장유성 입



성재연 등 1894년 4월25일 무장기포의 합성과 율립을 전국에 알렸다.

이번 제16회 녹두대상은 30여 년 동안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은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정남기 상임고문이 수상, 상금 1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

또한 주영체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의 무장포고문 낭독과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과 관의 역사학도들의 참여로 고창무장기포기념제의 의미를 더했다. 농민군 복장의 800여 명의 참가자가 축장을 들고 진격로를 걷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정읍시, 하반기 계절근로자 희망 농가 수요조사 5월 8일까지 신청

정읍시(시장 이학수)가 농촌인구 감소와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관내 거주 농업인·농업법인, 근로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가족 및 4촌 이내 친척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 인력 수요가 큰 농업분야에서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의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5월 8일까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작물·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며, 미취학 아동 양육농가, 65세 이상

농업인, 근로조건 우수농가 등 가정부여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3명 추가로 신청 가능하며, 참여가능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 최저임금(2023년도 시급 9,620원) 이상의 임금지급,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향후 이뤄질 법무부 배정심사회의를 통해 정읍시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참여농가와 계절근로자 초청자 매칭 작업을 통해 올 7월부터 농업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읍시는 2023년 상반기 150명 배정 인원을 확정받아 외국 지자체 MOU협약 도입방법으로 베트남 람동성에서 34명이 입국하여 15농가에 배치되었고,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가족 및 4촌 이내의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47명이 20농가에서 근무 중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브릿지 사업 수립 착수보고회

정읍시, 김형우 부시장과 신정동 일원서 연구기관 핵심 연구원들 참석 개최

정읍시는 25일 전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브릿지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김형우 부시장과 신정동 일원 연구기관 핵심 연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정읍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하여 마련됐다.

정읍에 제3의 전북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정된다면, 추가조성부지 250천㎡를 포함 부지 1,801천㎡에 30년간 사업비 1조 7,324억원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기 조성된 대구·오송 첨단



의료복합단지 대비 예산의 40%만으로도 기존 연구소 인프라를 활용하여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호남권에 공백 되어있는 바이오 산업 발전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前 연구소 인프라 보강사업의 선 국가 사업 유치에 대한 전략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으며,

김형우 부시장은 "이번 용역을 성공적으로 준비하여 내실있는 용역 성과물로 관련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 신정동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 등 3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방사선기기표준화연구소,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등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인프라를 보유 전 북연구개발특구 농생명융합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최첨단 판소리 실감영상 콘텐츠 구축 선정

고창군 신재효판소리공원 내 최첨단 판소리 실감영상 콘텐츠가 만들어져 불거리를 더한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2023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총사업비 4억2000만원(국비 2억원, 군비 2억원, 기타 2000만원)으로 판소리 XR실감영상콘텐츠 구축이 핵심이다.

고창 지역의 대표 문화자원인 K-Culture 전통 판소리와 디지털 문화기술을 융합한 콘텐츠를 신재효판소리공원 내 체험관에 구축해 군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할 필요에서 기획됐다.

XR(eXtended Reality)은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혼합현실(Mixed Reality) 등 실감기술 전체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고창판소리 XR실감영상콘텐츠'는 판소리콘텐츠 4편 △로발가(로가가) △춘향가(어서출두) △심청가(인당수 배탈 부는데) △흥부가(박타령)와 영상아트형 체험형 XR실감콘텐츠 서비스로 제공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배 냉해피해 농가 찾아 대책 강구 마련 당부

심덕섭 고창군수가 배 냉해 피해 농가를 찾아 농업인을 위로하고, 관련 부서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난 24일 오후 심덕섭 군수는 고창군 성송면과 무장면의 배 과수원을 찾았다. 한창 나무에 배가 달려야 할 시기임에도 열매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나무가지에 맺힌 꽃봉오리는 거뿔하게 말라 있었

고 손을 대자 함없이 부서졌다.

고창배영농조합 신점식 조합장은 "포근한 날씨로 배 꽃 개화가 2주 정도 빨라졌는데, 이후 비가 오고 고창 지역 아침 기온이 갑자기 낮아지면서 제대로 수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더해 배꽃이 환하게 피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매개벌이 과수원에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은 "저온

피해가 발생한 과수원은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내년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저온피해 사후관리 요령과 나무 수세관리를 위한 꽃눈 분화 유도 과원 예찰을 통한 병해충 방제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가의 절망적인 하소연에 위로를 건네며 관련부서에 피해대책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주문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노인 일자리창출 '맞손'

부안군로컬JOB센터,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취업지원센터가 부안군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가졌다.

25일 부안군로컬JOB센터 회의실에서 부안군로컬JOB센터 김희진센터장,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장우철센터장,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취업지원센터 최현호 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군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지역 내 노인일자리 발굴 및 취업 연계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3개 센터는 △기



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질 자원의 상호 교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아이템 발굴 및 정보교류 △지역 고용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상호 지원체계 확충 등의 내용에 대해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Advertisement for '착한신고' (Good Reporting) campaign. It features a woman covering her face in distress and a large graphic with the number 112. Text includes: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and a list of actions to take if you suspect child abuse, such as reporting to the child protection officer, not spreading rumors, and providing information to the police.